

## Holland 6각형 모형의 탐구형·진취형(IE) 축과 직업가치와의 관계분석

최선희\*, 조인수, 서설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 The Analysis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the Axis of Investigative · Enterprising(IE) in Holland Hexagonal Model and Job Value

Seon-Hee Choi\*, In-Soo Cho, Seol-Hwa Seo  
Dept. of vocation, Kyu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약** 본 논문은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내·외재적 직업가치를 가능하는 축이 탐구형·진취형(IE)임을 검증하기 위해 직업 카드분류150 검사에 참여한 19명 연구대상자의 Holland 6각형 모형과 내·외재적 직업가치를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탐구형·진취형(IE) 축을 중심으로 Holland 6각형 모형이 예술형(A), 사회형(S) 쪽으로 치우쳐 있는 연구 집단은 내재적 직업가치를 나타내어 가설을 지지하였다. 둘째, 탐구형·진취형(IE) 축을 중심으로 6각형 모형이 현실형(R), 관습형(C) 쪽으로 치우쳐 있는 집단은 외재적 직업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유교문화권에서 정신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맥락이 작용한 결과이며, Holland 6각형 모형이 정확하게 탐구형·진취형(IE) 축의 왼쪽에 분포 되지 않은 면도 있다. 셋째, 양가적 직업가치의 집단은 탐구형·진취형(IE)축을 기준으로 Holland 6각형이 예술형(A), 사회형(S), 현실형(R), 관습형(C) 등에 걸쳐 나타낸다는 일부 가설을 지지하였다. 본 논문은 일부 가설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olland 6각형 모형 중 탐구형·진취형(IE) 축이 가치를 구별하는 잣대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연구로서 Holland 6각형 모형이 직업선택 뿐만 아니라 직업가치를 예언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Holland 이론의 저변 확대를 꾀하였고, 직업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ed to verify that Investigative · Enterprising(IE) axis in the Holland hexagonal model can measure the internal and external job value. This study analyzed internal and external job values of 19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150 Job cards classification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group with Holland hexagonal model centered on the Investigative · Enterprising type(IE) axis and artistic type(A) and social type(S) showed internal job value and supported the hypothesis. Second, the hypothesis that the group with the hexagonal model centered on the Investigative · Enterprising(IE) axis and the bias toward the realistic type(R) and the conventional type(C) would pursue external job value was rejected. This is due to the Korean cultural context that pursues psycho-cultural value in Confucian culture. There is also a Holland hexagonal model that is not exactly distributed to the left of the Investigative · Enterprising(IE) axis. Third, the group of amphibolic job value based on the Investigative · Enterprising(IE) axis, and the Holland hexagonal model is expressed in artistic type(A), social type(S), realistic type(R), and conventional type(C) supported some hypotheses. This paper is the first to suggest that the Investigative · Enterprising(IE) axis of the Holland hexagonal model can be used to measure job value, and the Holland hexagonal model can predict job value as well as career choice. This paper is intended to expand the foundation of the Holland theories, and to provide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basis for vocational studies.

**Keywords** : career, enterprising, hexagonal model, Holland, investigative, job value, vocational study

\*Corresponding Author : Seon-Hee Choi(Kyunggi Univ.)

Tel: +82-10-6656-3221 email: yueliangch@daum.net

Received October 17, 2017

Revised (1st November 1, 2017, 2nd November 8,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 1. 서론

Holland 6각형 모형은 RIASEC으로 왼쪽 상단부터 현실적(Realistic; R)·탐구적(Investigative; I)·예술적(Artistic; A)·사회적(Social; S)·진취적(Enterprising; E)·관습적(Conventional; C) 등이 시계방향으로 배열된다. Holland는 6각형 모형에서 각 성격유형별 직업적 및 비직업적 선호, 인생목표와 가치, 자기신념, 문제해결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Holland 6각형 모형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현실형(R)은 전통적인 가치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 야망과 자기 통제력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탐구형(I)은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에 가치를 둔다. 예술형(A)은 분명하고 논리적이며 높은 야망이 필요한 일보다는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한 일을 가치있게 생각한다. 사회형(S)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활동이나 성취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진취형(E)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관습적인 가치를 따르는 경향이 있어 경제 분야나 정치 분야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관습형(C)은 사업이나 경제에 관련된 활동이나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Holland, 1997). 이러한 성격유형으로 보자면,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은 지적이고 논리적, 상상과 용기, 윤리적 등의 가치를 갖는 반면, 현실형(R), 관습형(C), 진취형(E)은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야망, 목표, 경제 등에 가치를 갖는다.

인간의 가치는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Schimel 등(2004)에 따르면, 자기가치 확인에서 ‘내재적(intrinsic) 자기가치 확인’과 ‘외재적(extrinsic) 자기가치 확인’ 등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내재적 자기가치는 무조건적인 수용 경험, 핵심적인 자기 가치, 외재적 자기가치는 조건적 수용 경험, 사회적 평가 기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직업가치는 금전, 명예, 권위 등과 관련된 외재적 가치, 자기실현, 자기표현, 보람 등과 관련된 내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김병숙, 2007). 이를 바탕으로 Holland의 성격유형을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한다면,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은 내재적 가치, 현실형(R), 관습형(C), 진취형(E)은 외재적 가치로 구분된다.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두 개의 가치와 만나는 접점은 탐구형(I)과 진취형(E)의 두 축이다.

이 축으로 보면 6각형 모형에서 예술형(A), 사회형(S) 쪽으로 치우친 6각형 모형은 내재적 가치, 현실형(R), 관습형(C) 쪽으로 치우친 6각형 모형은 외재적 가치, 탐구형(I)과 진취형(E)의 두 축에서 예술형(A), 사회형(S), 현실형(R), 관습형(C) 등에 걸쳐 있는 6각형 모형은 양가적 가치를 나타낸다. 양가적(ambivalent) 가치는 내재적·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로서 상황에 따라 지향하는 가치가 변화한다.

직업상담의 최종목표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진로를 계획하고 수립하여 진로를 개척하도록 돕는데 있다. 직업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가치를 파악함으로써 내담자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미래 직업 선택의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 선택의 만족도와 직업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Holland 성격유형과 직업가치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보면, 자기보고식 객관적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각 성격유형과 직업가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양적 검증은 하거나[1], 직업카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질적 검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표현된 주제어 분석을 통해 선호하는 가치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으나[2-3], 탐구형·진취형(IE) 축으로 분포한 Holland 6각형 모형을 보고 직업가치의 예언력을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상담 장면에서 직업카드분류150을 통해 도출된 Holland 6각형 모형이 직업가치를 예언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내담자의 직업선택을 돕고 직업상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탐구형·진취형(IE)의 축을 기준으로 Holland 6각형 모형이 예술형(A)과 사회형(S)에 치우쳐 있는 경우 내재적 가치를 지지하는가?
- 연구문제2. 탐구형·진취형(IE)의 축을 기준으로 Holland 6각형 모형이 관습형(C)과 현실형(R)에 치우쳐 있는 경우 외재적 가치를 지지하는가?
- 연구문제3. 탐구형·진취형(IE)의 축을 기준으로 Holland 6각형 모형 면적이 예술형(A)과 사회형(S), 관습형(C)과 현실형(R) 양쪽에 유사하게 분포할 경우 양가적 가치를 지지하는가?
- 연구문제4. 탐구형·진취형(IE) 축이 가치를 구분하는 잣대로서 직업가치를 예언할 수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Holland 이론

Holland는 각 6개 성격유형이 환경에 직면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반응 태도와 기술에 걸친 일련의 특징을 갖고, 각각 직업 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삶의 목표와 가치, 자신에 대한 신념, 문제해결 방식 등이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6개 성격유형이 선호하는 직업환경은 다른 활동, 능력을 필요로 하고 주어지는 보상도 서로 다르다(김병숙·이준일, 2014 재인용). Holland는 직업적 성격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가치는 자기개념 등과 함께 형성되는 개인의 성향(disposition)으로 해석하였으며, 6가지의 직업적 성격의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 직업적 성격에 따라 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직업적 성격과 직업가치가 어느 정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김종학, 201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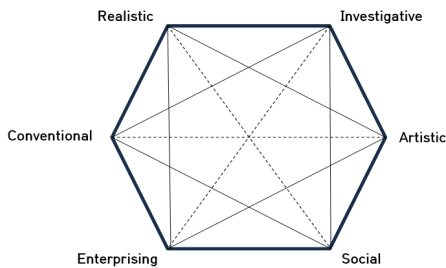


Fig. 1. Holland hexagonal model

6각형에서 현실형(R)과 탐구형(I), 진취형(E)과 사회형(S)은 서로 인접해있으면서도 성격유형과 지향하는 가치가 확연히 갈라지는 지점의 코드이다. 현실형(R)은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명성이나 존경보다는 명백하고 생산적인 만족이나 보상을 선호하는 반면, 탐구형(I)은 창조적이며, 관찰, 상징적, 학문적, 지적 활동을 선호한다. 진취형(E)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명성과 지위, 인정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형(S)은 수직적 인간관계보다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활동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현실형(R)과 탐구형(I), 진취형(E)과 사회형(S)이 구분되는 지점에서 탐구형·진취형(IE)을 축으로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을 포함하는 오른쪽 면적은 인간관계나 자기표현 등 내재적 직업가치를 선호하고, 진취형(E), 관습형(C), 현실형(R)이 포함된 왼쪽 면적은 사

회적 인정이나 안정성, 정치경제적 보상, 금전, 지위 같은 눈에 보이는 특성, 즉 외재적 직업가치를 선호한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박형규[1]는 Holland의 직업적 성격과 내재·외재·병재적 직업가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김종학[4]은 Holland 직업적 성격유형에 기반한 직업가치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엄태성[5]은 Holland의 직업성격유형과 직업가치가 외식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창업자의 직업성격유형과 내외적 직업가치와 창업의지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배혜련[6]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Holland 이론에 나타난 RIASEC 유형별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유인실[7]은 부모직업의 RIASEC 유형과 자녀의 직업포부나 직업가치 사이에는 유의성을 보고하였다. 이경미[8]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Holland 직업흥미유형에 따라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와 같이 Holland 이론의 성격유형과 직업가치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탐구형·진취형(IE) 축을 기준으로 6각형 모형의 분포에 따라 지향하는 직업가치 예언력에 대해 검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 2.2 직업가치

직업은 개인의 생계유지와 사회적 역할 분담, 자기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수입을 얻는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시간, 트렌드의 변화, 정책 등의 반영과 사회발전에 따라 늘 변화하고 있다.

가치는 행동의 이용 가능한 양식, 수단, 목표 등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으로 개인의 내적 욕구(needs)가 외적 압력(presses)에 의한 조정을 거쳐 의식의 영역에 표출된 것이다(Murray, 1938). 즉, 가치는 어떤 특정 행동방식이나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에 기초한 신념이며, 가치관은 한 집단이 공유하거나 적어도 가장 유력하게 유지되는 가치로서, 복합적이며 일정한 유형을 갖는 원칙으로 구분된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삶에서 지향할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근거를 일반적으로 직업가치라 한다. 직업가치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나 사회적 가치체계를 통해 직무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차가 있어 학습을 통해 형성되거나 발전될 수 있어 점차 누적되어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직업가치는 직업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특정 직업에 관련된 것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직업 활동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도 및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다(강맹현, 1994; 안강현, 1998). 직업가치의 하위영역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크게 일 자체에 의미를 두는 내재적 가치(intrinsic job value)와 일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이익이나 보상에 관심을 두는 외재적 가치(extrinsic job value)로 구분한다(Kalleberg, 1977)[9].

직업가치는 일반적으로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로 구분한다(Wollack, Goodale & Smith, 1971). Dawis(1991)에 의하면, 직업에 있어 일과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흥미 있는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가? 등으로 직업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사회적 봉사, 타인과 더불어 일하는 것, 자신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등을 중시하는 경우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Prediger & Staple, 1996; 조주은, 2016). 내재적 가치는 자기실현을 추구하고, 사회에 헌신하며, 일에 보람을 느끼며, 이상을 추구하며, 직업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며, 외재적 가치는 경제적 도구, 권력 추구, 안정 등 직업을 도구적 가치로 보는 측면이다(백영균, 1980; 임인재, 1990; 김병숙, 1997).

Kalleberg(1977)의 정의에 따르면, 외재적 가치는 일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이익이나 보상에 관심을 두는 요인이며, 내재적 가치는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일 자체에 의미를 두는 요인이다. 외재적 가치는 임금, 복리후생, 경제적 및 사회적 인식 등 직업활동 외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내재적 직업 가치는 적성, 흥미, 인간관계, 능력 등과 같은 직업 활동 자체와 관련이 있다(Ginzberg, 1952; 오성욱, 이승구, 2009).

가치와 유형간의 관계는 종종 유형의 특징과 일관성 있게 나타나기도 한다. 생애목표 문항에 관한 연구(Astin & Nichols, 1964; Baird, 1970)와 Allport-Vermon-Lindzey 척도에 의한 연구(Williams, 1972; Laudeman & Griffeth, 1978)에 따르면 탐구형은 이론 척도에 높고 과학적 성취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예술형은 심미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예술적 성취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사회형은 사회적 척도, 종교성 척도, 이타성 및 종교성에 가치를 높게 드러내 보인다. 기타 다른 유형에 관해서 밝혀진 것들은 비교적 확실치 않다. 즉 진취형과 관

습형은 서로 다른 생애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성 척도와 경제성 척도에서 유사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다. 한편 현실형, 탐구형 등은 대부분 과학적인 성취 부분의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Holland, 1997).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2017. 5. 25.~9. 7.까지 한국직업상담협회, 인천청선학교 등의 연수생 76명을 대상으로 직업카드분류150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탐구형·진취형(IE) 축을 중심으로 좌우의 6각형 면적으로 볼 때, 내재적 직업가치 6명, 외재적 직업가치 5명, 양가적 직업가치 8개 등 총 19명을 선정하였다.

Table 1. Subject of study

Case	Preference value	Age group	Sex	Scho.	Job
1	Intrinsic Job Value	40s	f	grad.grad	Tutoring teacher
2		30s	m	univ.grad	Photo Articles
3		30s	f	univ.grad	employee
4		30s	f	univ.grad	soldier
5		50s	m	univ.grad	Self-employed
6	Extrinsic Job Value	40s	f	univ.grad	Educational Development Specialist
7		30s	m	univ.grad	Self-employed
8		30s	m	high.grad.	employee
9		30s	m	univ.grad	soldier
10		30s	f	univ.grad	employee
11	ambivalent Job Value	50s	m	univ.grad	Special school teacher
12		30s	m	univ.grad	School staff
13		50s	f	high.grad.	Self-employed
14		30s	m	univ.grad	computer programmer
15		20s	f	univ.grad	employee
16		50s	m	univ.grad	Self-employed
17		40s	f	grad.grad	Special school teacher
18		50s	f	high.grad.	Self-employed
19		50s	f	univ.grad	Self-employed

scho.= scholarship / univ. = university / high. = highschool grad. = graduation

19명의 연구 대상자의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군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교사, 교직원 등 다양했으며,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대상 19명은 20~60대까지 걸쳐있으며, 남자 9명(47%), 여자 10명(53%)이고, 연령대는 30대 6명(32%), 50대 6명(32%), 40대 3명(16%) 순으로 많았다. 학력은 대졸자가 14명(74%)으로 가장 많았다.

### 3.2 연구도구

#### 3.2.1 직업카드분류 검사

직업관련 연수에 참여한 대상자 77명에게 직업카드분류150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직업카드분류150 검사는 앞면에 직업명, 영문직업명, 뒷면에 간략한 직무내용, 업무수행능력, 자격요건, 관련 직업, Holland 3코드가 제시되어 있다.

직업카드분류 활동 시간은 60~90분 소요되었으며, 자격을 갖춘 직업카드심리검사가가 직업카드분류 검사를 진행하였다. 직업카드분류 활동 진행 방법은 『직업카드분류 150』의 지침서[10]에 따라 진행하였다.

직업카드분류150의 Holland 6각형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위하여 연구대상자가 ‘좋아하는 직업’으로 분류된 카드들 중에서 우선으로 선호하는 직업 12가지를 선택하고, 1~12순위까지 순위별 직업명과 Holland 3코드를 기재하게 하였다. 그 다음 Holland 코드 계산 단계로서, 우선순위로 정렬한 12개 직업의 3코드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Holland 코드 첫 자리는 제1코드로 가중치 3점, 두 번째 자리는 제2코드로 가중치 2점, 세 번째 자리는 제3코드로 가중치 1점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이때에 6개 코드 점수의 총합은 72점이며, 각 코드의 가장 높은 점수는 36점이다. 개인이 갖는 Holland 3코드는 가장 높은 점수부터 3번째 높은 점수의 코드이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연구대상자의 Holland 6각형 모형과 3코드를 추출하였다.

#### 3.2.2 직업가치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직업가치 측정을 위해 기존 선행 연구 분석을 한 뒤 김병숙(1998)의 내재적·외재적 직업가치 척도를 참조하여 내재적 직업가치는 적성 및 흥미, 자기표현, 사회현신, 인간관계 중심, 직업윤리 등 4개 변인, 외재적 직업가치는 권력 추구, 경제 우선, 사회인식 중시,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및 근로시간 등 5개 변인 등으로 척도를 개발하였다. 내재적 직업가치 5개와 외재적 직업가치 5개 항목의 하위 변인 5개 문항을 만들어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구성하였다. 2017. 8. 1.~14.까지 66명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화 하였으며, 내재적 직업가치는 적성 및 흥미(3문항), 자기표현(5문항), 사회현신(4문항), 인간관계 중심(3문항), 외재적 직업가치는 권력 추구(3문항), 경제 우선(4문항), 사회인식 중시(5문항), 고용안정성(4문항)으로 등 총 31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내재적 직업가치 .796~.872, 외재적 직업가치 .495~.829 등이다.

### 3.3 분석 방법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탐구형·진취형(IE) 축을 기준으로 분포된 프로파일을 수집하기 위하여 직업카드분류150 검사를 실시하고 연구대상자 19명의 3코드와 6각형 모형을 확인하였다.

탐구형·진취형(IE) 축으로 오른쪽 면적이 넓은 집단은 내재적 직업가치, 왼쪽 면적이 넓은 집단은 외재적 직업가치, 양쪽 면적이 동일하게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내재적·외재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양가적 가치 집단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연구대상자가 갖는 Holland의 3코드는 내재적 집단인 경우,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외재적 집단인 경우, 탐구형(I), 현실형(R), 관습형(C), 진취형(E), 양가적 집단인 경우 현실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 등 모든 코드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여 연구대상자를 확정하였다.

19명 연구대상자들에게 직업가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각형 모형과 비교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내재적 가치의 Holland 6각형 모형

탐구형·진취형(IE) 축에서 예술형(A), 사회형(S) 쪽으로 치우친 6각형 모형은 총 6명으로 이 집단을 내재적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각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Fig.2). 연구대상 6명의 Holland의 3코드는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6명의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탐구형·진취형(IE) 축을 기준으로 예술형(A), 사회형(S)이 위치한 오른쪽으로 치

우친 면적이 총 72점에 평균 86.9%를 나타냈다. 반면에 현실형(R), 관습형(C)이 위치한 왼쪽으로 치우친 면적은 13.1%를 나타냈다. (1-1)의 경우 Holland 코드가 SAI로, S=26점, A=20점, I=11점으로, 내재적 가치에서 인간관계 중심, 사회현실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형(S)의 점수가 첫 코드로 제일 높으며, 자기표현과 흥미에 가치를 두는 예술형(A) 점수 또한 높아 6각형 오른쪽 면적이 두드러지게 넓게 나타났다. 반면에 C=4점, R=2점으로 점수가 사회형(S)과 예술형(A)에 비해 상당히 낮아 탐구형·진취형(IE)을 축으로 왼쪽 면적이 전체 6각형 면적에서 20%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1-3)은 A=27점, (1-4)는 A=24점으로 예술형(A) 점수가 다른 코드보다 높으며, (1-2), (1-5), (1-6) 또한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점수가 관습형(C)과 현실형(R)보다 두드러지게 높아 오른쪽 면적이 넓게 나타나고 있어 내재적 가치를 더 선호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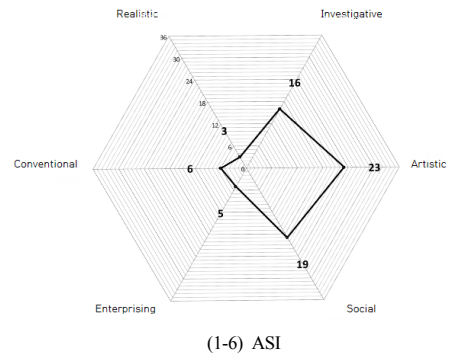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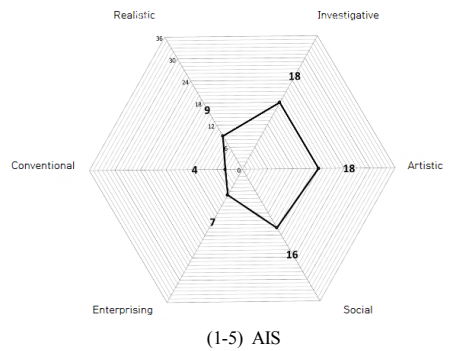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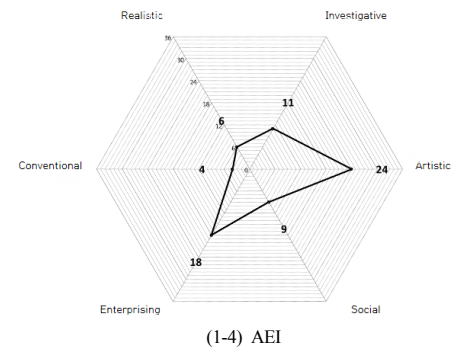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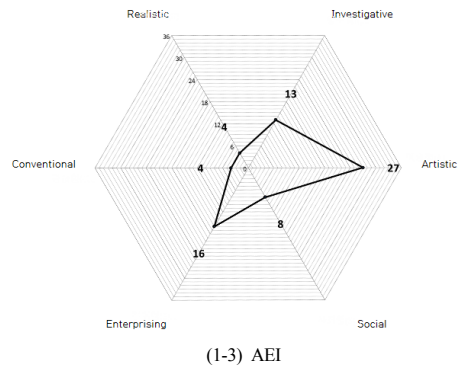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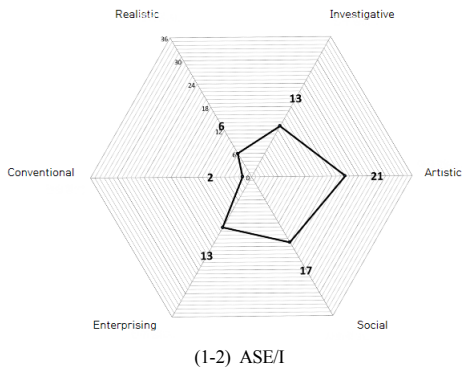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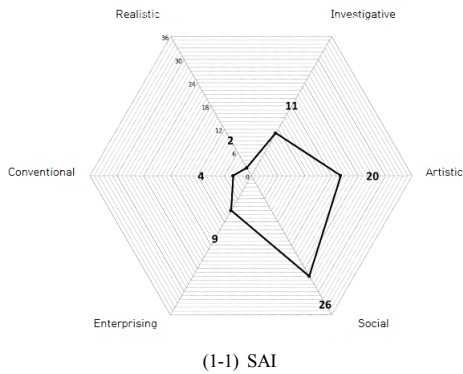


Fig. 2. Six case of Holland's hexagonal model (Intrinsic Job Value preference)

### 4.2 외재적 가치의 Holland 6각형 모형

탐구형·진취형(IE) 축에서 현실형(R), 관습형(C)쪽으로 치우친 6각형 모형을 나타낸 집단을 외재적 가치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총 5명이며, 이들의 Holland 3코드는 탐구형(I), 현실형(R), 관습형(C), 진취형(E) 등으로 구성되었다(Fig.3). 다음 5명의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탐구형·진취형(IE) 축을 기준으로 현실형(R), 관습형(C)이 위치한 왼쪽으로 치우친 면적은 총 72점에서 평균 83.8%를 보였다. 반면에 예술형(A), 사회형(S)이 위치한 오른쪽으로 치우친 면적이 16.2%를 나타냈다. (2-1)의 경우 C=19점이고, (2-2)의 경우는 E=19점, C=15, R=11 점으로, (2-3)은 C=18점, R=14점, (2-4)는 C=21점, E=22점, (2-5)는 C=15점, R=21점으로, 관습형(C)과 현실형(R)의 점수가 예술형(A)과 사회형(S)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왼쪽 면적이 넓게 나타나 외재적 가치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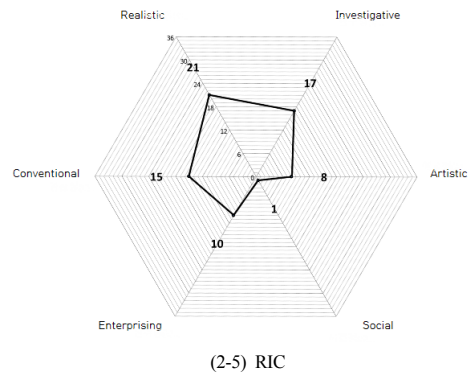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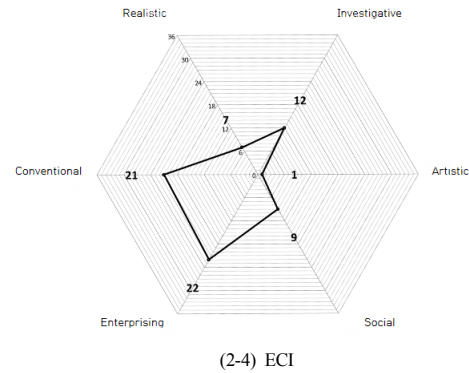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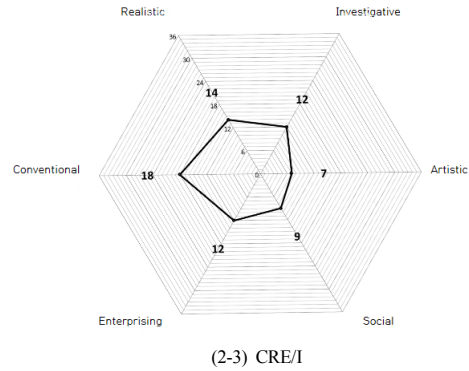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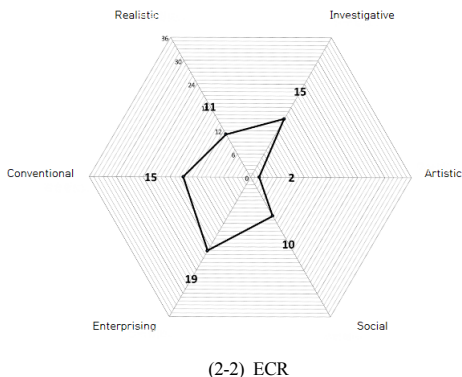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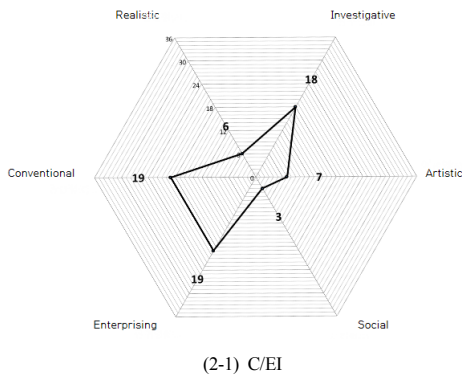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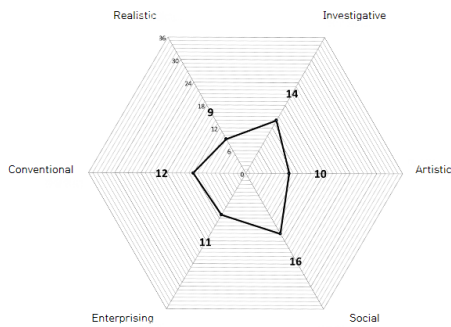
Fig. 3. Five cases of Holland's hexagonal model (Extrinsic Job Value preference)

### 4.3 양가적 가치의 Holland 6각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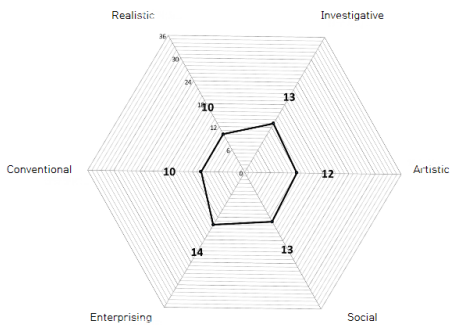
탐구형(I)과 진취형(E)의 두 축에 예술형(A), 사회형(S), 현실형(R), 관습형(C) 등에 걸쳐 있는 6각형 모형은 양가적 가치를 나타내며 총 8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Holland 3코드는 현실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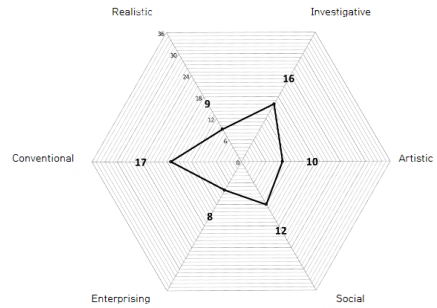
형(S), 진취형(E), 관습형(C) 등 모든 코드를 포함한다 (Fig.4). 다음 8명의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탐구형·진취형 (IE) 축을 기준으로 예술형(A), 사회형(S)이 위치한 오른쪽으로 치우친 면적과 현실형(R), 관습형(C)이 위치한 왼쪽으로 치우친 면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3-1)의 경우 A=10점, S=16점, C=12점, R=9점으로, 6각형 면적이 탐구형·진취형(IE) 축을 기준으로 양쪽에 비슷한 면적으로 분포하였다. (3-2)도 E=14점, I=13점, R=10점, S=13점, C=10점, A=12점으로, Holland 6각형의 마주보는 코드의 점수가 3점 이내이며, 6각형 모형도 탐구형·진취형 (IE) 축으로 동일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3-3)~(3-8)도 탐구형·진취형(IE) 축으로 6각형 면적이 동일하게 차지하고 있어 양가적 가치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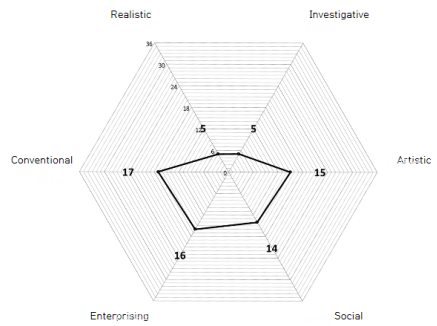
(3-1) 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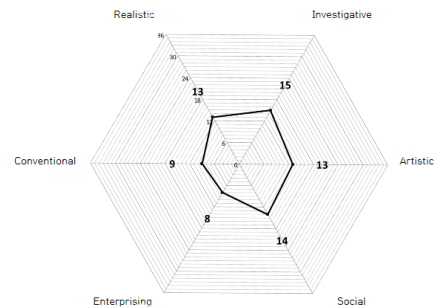
(3-2) E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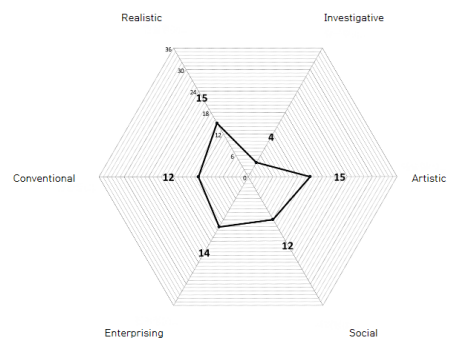
(3-3) CIS



(3-4) CEA



(3-5) ISE/A



(3-6)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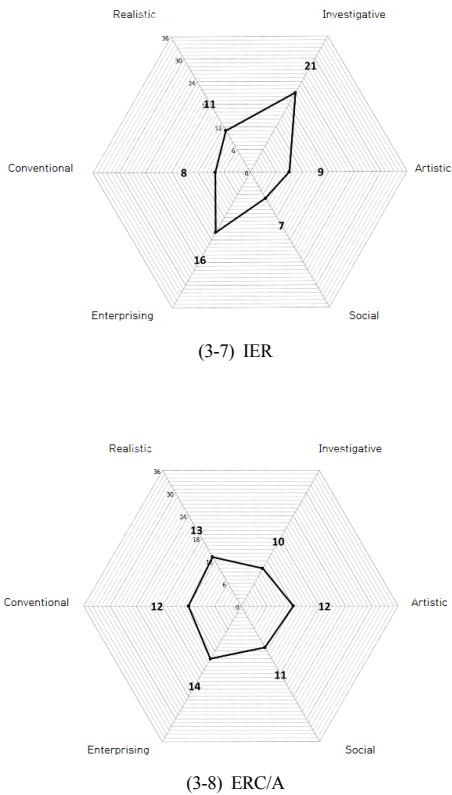


Fig. 4. Eight case of Holland's hexagonal model (Amphibolic Job Value preference)

#### 4.4 Holland 6각형 모형과 직업가치

직업카드분류150 검사 실시 후 Holland 6각형 모형과 Holland 3코드에 따라 내재적·외재적·양가적 가치집단으로 분류하고 직업가치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이때에 직업가치 관정은 평균값이 3.0이상이거나 3.0 미만일 경우 더 높은 점수 등의 가치로 판정하였다.

Holland 3코드와 직업가치를 비교한 결과, 내재적 가치 집단의 직업가치의 평균값을 보면, 내재적 3.49, 외재적 2.59 등으로 내재적 직업 가치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탐구형·진취형(IE) 축에서 예술형(A), 사회형(S) 쪽으로 치우친 6각형 모형이 내재적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은 지지되었다.

Table 2. Job Value Survey Results

division	Case	Code	Intrinsic job value subscale				External value subscale				Implied average	External average	Value
			Aptitude and interest	Self expression	Social commitment	Center of human relations	Seeking power	Economic priority	Social awareness	Employment stability			
1. Immanence	1-1	SAI	3.33	3.20	3.25	3.67	2.67	2.50	2.80	2.75	3.36	2.68	immanence
	1-2	ASE/I	3.33	3.40	3.00	3.00	2.67	2.50	2.60	2.25	3.18	2.50	immanence
	1-3	AEI	3.00	3.20	3.00	3.00	2.33	3.00	2.40	2.25	3.05	2.50	immanence
	1-4	AEI	3.67	3.60	4.00	3.67	1.33	3.00	2.80	2.00	3.73	2.28	immanence
	1-5	AIS	4.00	3.60	3.75	4.00	1.67	3.00	3.40	3.00	3.84	2.77	immanence
	1-6	ASI	4.00	3.20	4.00	4.00	2.33	2.50	3.00	3.00	3.80	2.83	immanence
		Implied total average		3.56	3.37	3.50	3.56	2.17	2.75	2.83	2.63	3.49	2.59
2. Exterior	2-1	CEI	3.67	3.80	3.25	3.33	2.00	2.75	2.80	2.50	3.51	2.51	immanence
	2-2	ECR	4.00	3.40	3.50	3.67	1.00	3.25	2.60	4.00	3.64	2.71	immanence
	2-3	CRE	3.33	2.00	2.75	3.67	2.00	2.75	2.20	3.50	2.94	2.61	immanence
	2-4	ECI	3.33	3.60	3.75	4.00	2.00	3.25	2.60	4.00	3.67	2.96	immanence
	2-5	RIC	4.00	2.60	4.00	3.00	2.00	2.00	2.00	3.00	3.40	2.25	immanence
		External total Average		3.67	3.08	3.45	3.53	1.80	2.80	2.44	3.40	3.43	2.61
3. Ambivalence	2-1	SIC	3.00	2.40	2.75	3.00	2.00	2.25	2.60	2.75	2.79	2.40	immanence
	2-2	ESI	4.00	3.80	3.75	4.00	2.33	3.50	2.60	3.75	3.89	3.05	Ambivalence
	2-3	CIS	3.33	3.40	3.00	3.67	1.00	2.75	2.40	2.75	3.35	2.23	immanence
	2-4	CEA	2.67	2.20	2.25	3.67	2.00	2.50	2.00	3.25	2.70	2.44	Ambivalence
	2-5	ISA	3.33	3.60	3.00	3.67	3.00	3.25	2.80	3.00	3.40	3.01	Ambivalence
	2-6	AR/E	4.00	4.00	3.75	4.00	4.00	3.50	4.00	4.00	3.94	3.88	Ambivalence
	2-7	IER	4.00	3.20	3.50	4.00	3.33	3.25	3.00	3.25	3.68	3.21	Ambivalence
	2-8	ERC/A	3.67	3.20	4.00	3.00	1.67	2.50	2.20	3.00	3.47	2.34	immanence
	Ambivalence Total average		3.50	3.23	3.25	3.63	2.42	2.94	2.70	3.22	3.40	2.82	
	Ambivalence Total average		3.57	3.19	3.35	3.59	2.13	2.89	2.62	3.11	3.39	2.69	

외재적 가치 집단의 직업가치의 평균값을 보면, 내재적 3.43, 외재적 2.61 등으로 내재적 가치를 나타냈다. 탐구형·진취형(IE) 축에서 현실형(R), 관습형(C)쪽으로

치우친 6각형 모형이 외재적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에서 갖는 내재적 가치의 우월성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탐구형·진취형(IE) 축에서 현실형(R), 관습형(C)쪽으로 완벽하게 치우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양가적 가치 집단의 가치의 평균값을 보면, 내재적 가치 3.40, 외재적 가치 2.82 등으로 8명 중 5명은 양가적 가치, 3명은 내재적 가치로 나타났다. 탐구형(I)과 진취형(E)의 두 축에 예술형(A), 사회형(S), 현실형(R), 관습형(C) 등에 걸쳐 있는 6각형 모형은 양가적 가치를 갖는다는 가설은 일부 지지되었다.

## 5.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탐구형·진취형(IE) 축이 직업가치를 예언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업카드분류150의 검사결과에 따라 내재적 가치 집단, 외재적 가치집단, 양가적 가치집단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직업가치를 측정하여 Holland 6각형 모형과 비교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가치를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했던 내재적 가치 집단은 내재적 가치를 확연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창적이고 비순응적이며 심미적이고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예술형(A)과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며 성장시키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형(S)의 특성이 선호하는 직업가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11]. 탐구형(I), 사회형(S), 예술형(A)의 성격유형이 학문적, 논리적, 대인관계, 윤리, 상상과 용기, 자기표현 등 내재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기존 선행연구[1-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예술형(A)과 사회형(S)의 방향으로 뚜렷한 면적을 가진 집단은 내재적 가치임이 지지되었다.

둘째, 외재적 직업가치를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했던 외재적 가치 집단은 모두 내재적 직업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진취형(E)과 관습형(C), 현실형(R)이 물질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 획득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선행연구[1,4-8,11]와는 반대의 결과다. 이와 같이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관습형(C), 현실형(R) 방향으로 뚜렷한 면적을 지닌 집단이 외재적 집단임은

기각되었다.

셋째, 내재적·외재적 직업가치를 모두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했던 양가 집단은 직업가치 조사 분석 결과, 양가적 가치를 선호하는 프로파일은 5개(63%), 내재적 가치를 선호하는 프로파일은 3개(38%) 등으로 나타났으며, 63%에 해당하는 5개 프로파일은 확연하게 내재적·외재적 직업가치를 모두 높은 값으로 지지하였다. 관습형(C)과 현실형(R), 사회형(S)과 예술형(A) 성격유형을 모두 갖고 있는 양가적 집단의 경우, 내재적 가치를 선호하면서도 관습형(C)과 현실형(R)이 지향하는 권력 추구, 경제 우선 등의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지지하는 결과가 나와 양가적 집단은 양가적 가치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1]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탐구형·진취형(IE) 축이 직업가치를 예언한다는 가설을 일부 지지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Holland 3코드와 6각형 모형도 개인이 갖는 가치를 예언할 수 있는 단서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갖는다.

첫째, 탐구형·진취형(IE) 축을 기준으로 관습형(C)과 현실형(R) 점수가 높아 Holland 6각형 면적이 왼쪽으로 평균 83.8% 분포하는 외재적 집단의 경우 외재적 가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가설을 기각하였다. Holland(1997)는 진취형(E)과 관습형(C)은 서로 다른 생애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성 척도와 경제성 척도에서 유사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하였고, 박형규(2000)는 외재적 가치 영역의 척도와 직업적 성격 유형 점수와의 관계에서 진취형(E)과 관습형(C), 현실형(R)이 상위, 주도성, 권력 과시, 보수 등 직업 가치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 결과, 관습형(C)과 현실형(R)이 높은 경우 외재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선행연구[1,4-8,11]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유교 문화권 내에서 정신문화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직업교육을 받았던 한국 특유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는 문치주의로서 인문을 숭상하는 풍토를 조성하였고, 농경문화의 집단사회에서 유래된 가족중심 문화와 관계지향 문화는 일처리에 관계가 동원되면서 협동조직, 공동노동 문화로 오랫동안 존재하였다[12]. 이와 같이 600여 년 동안 내려온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탐구형·진취형(IE) 축이 직업가치를 예언할 수 있는 잣대임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선 오랜 기간에 걸쳐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점수가 매우 높고 진취형(E), 관습형(C), 현실형(R) 점수가 5점 이내로 낮은 내재적 집단 프로파일, 진취형(E), 관습형(C), 현실형(R) 점수가 매우 높으면서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점수가 5점 이내로 매우 낮은 외재적 집단 프로파일, 또한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 현실형(R) 점수가 비슷한 양가적 집단 프로파일이다 다량 축적되어야 한다. 이런 연구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직업가치와 관련하여 직업상담 장면에서 적용되고 해석된 풍부한 임상경험이 뒷받침된다면 Holland 6각형 모형의 직업가치 예언력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업카드분류150 검사를 통해 Holland 6각형 모형이 도출된 연구대상자들에 대해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지향하는 직업가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의 특징은 사건, 행위, 가치 등을 ‘연구 대상자들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사건과 행동 등을 그것이 발생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13]. 직업카드분류150 검사를 한 후, 내재적 가치를 80% 이상 지향하거나, 외재적 가치를 80% 이상 지향하는 연구대상자를 찾아 심층면담을 통해서 선호하는 직업가치를 형성하고 지향하는 주관적 의식과 맥락에 대해 Holland 6각형 모형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Holland 6각형 프로파일 중 탐구형·진취형(IE) 축이 가치를 구별하는 잣대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시도이며, Holland 6각형 모형이 직업선택 뿐만 아니라 가치를 예언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Holland 이론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직업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직업카드분류150 검사에 참여한 76명 대상자 중, 탐구형·진취형(IE) 축에서 예술형(A), 사회형(S) 점수가 5점 이내이면서 현실형(R), 관습형(C)의 점수가 두드러지게 높은 프로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Holland 6각형 모형이 탐구형·진취형(IE) 축을 기준으로 현실형(R), 관습형(C)으로 완벽하게 분포된 프로파일을 연구대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 5.2 제언

본 연구의 결론과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직업심리검사도구가 판정하는 결과들을 통합하여 내담자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각각의 검사들이 지향하는 판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검사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각 측정도구의 다면적 활용이 적용되는 것이 직업상담 영역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다.

둘째, 실증주의적 직업심리검사가 갖는 한계를 맥락주의적 입장의 질적 직업심리검사로 보완 가능하다. 그러므로 직업상담분야에 질적 직업심리검사의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 References

- [1] H. G. Park,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values and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ies of Highschool students", Pusan University, MA. Thesis, 2000.
- [2] S. J. Kim, "The Analysis of Career Adaptability by Cultural Self-Constual, Preference Types, Work Value Subtype, Kyonggi University, Ph.D. Thesis, 2011.
- [3] B. S. Kim, J. I. Lee, "The Case Study of consistency and calculus using Holland's Hexagonal model on the career indecisive cli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20, pp. 828-837,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2.828>
- [4] J. H.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Work Value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e", Jeju National University, Ph.D. Thesis, pp. 26-29, 2017.
- [5] T. S. Eum, "Effect of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and Vocational Valu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Food Service Industries : Aimed at Potential Founders and Prospective Founders", Yeungnam University, Ph. D. Thesis, 2008.
- [6] H. L. Bae, "Occupational values and vocational aspirations according to middle school students' individual personalit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03.
- [7] I. S. Yoo,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Occupational Type, Middle School Student's Occupational A spiration, and Occupational Valu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08.
- [8] K. M. Lee,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on Career Aspiration of College Students", Kwangwoon University, MA. Thesis, 2009.
- [9] A. L. Kalleberg, "Work values and job rewards: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 124-143, 1977.  
DOI: <https://doi.org/10.2307/2117735>
- [10] B. S. Kim, Job cards for the youth and the general public category guidelines (2nd. Ed.), Korea Vocational

Counseling Association, 2011.

- [11]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and work environments(3rd ed.),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7.
- [12] B. S. Kim, Korean Vocational Development History, sigmapress, p. 696, 2007.
- [13] S. N. Cho, H. J. Lee, Y. J. Joo, N. Y. Kim, Qualitative Research Design & Practice, Hakjisa, 2011.
- [14] S. H. Park, D. R. Lee, Korean Culture and Counselling, Hakjisa, pp. 23-24, 2008.
- [15] S. Wollack, J. G. Goodale, J. P. Wijting, P. C. Smith, "Development of the survey of work valu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55, no. 4, pp. 331-338, 1971. DOI: <https://doi.org/10.1037/h0031531>
- [16] J. E. Jo, "The Effect of Work Values of Airline Service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31, no. 6, pp. 47-62, 2016.
- [17] B. S. Kim, D. H. Kim, M. J. Kim, "Value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the Holland Personality Type cerebral hemisphere dominant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analysi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3, pp. 77-98, 2011.
- [18] E. Ginzberg, "Toward an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Occupations: The Vocational Guidance Journal*, vol. 30, no. 7 pp. 491-494, 1952. DOI: <https://doi.org/10.1002/j.2164-5892.1952.tb02708.x>
- [19] D. S. Kim, S. I. Jeong, "A Annual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Intrinsic Work Value, Extrinsic Work Value and Job Satisfaction Using Latent Growth Model", *The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vol. 32, no. 2, pp. 201-226, 2016.
- [20] H. A. Murray, Explorations in personality :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 [21]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1973.
- [22] J. L. Holland, "Exploring careers with a typology", *American Psychologist*, vol. 51, pp. 397-406,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1.4.397>
- [23] N. Y. Kim,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Cerebral Hemisphere Characteristic with Their Vocational Interest and Vocational Value", Kyonggi University, MA. Thesis, 2010.
- [24] J. O. Lee, "The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usan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02.
- [25] B. H. Jung, C. G. Ahn, "Career Development of Adults with Artistic and Conventional Occup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4, no. 1 pp. 1-30, 2004.
- [26] S. H. Kang, H. Y.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Company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Value and Occupational Adaptation of College Graduate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7, no. 2, pp. 125-149, 2017.
- [27] K. E. Bae,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about work value, career expectation, and career guidance", Konkuk

University, Ph.D. Thesis, 2013.

- [28] J. S.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values of parents and adolescent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Sogang University, MA. Thesis, 2017.

### 최 선 희(Seon-Hee Choi)

[정회원]



- 2005년 6월 : 중국 산둥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중어학 석사)
- 2014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8년 10월 ~ 2016년 7월 : 성균관대학교 학사지도 책임멘토

<관심분야>

직업, 진로, 직업카드, 직업심리, Holland

### 조 인 수(In-Soo Cho)

[정회원]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
- 2015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85년 9월 ~ 현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행정원

<관심분야>

직업, 진로, 생애설계준비, 북한이탈주민

### 서 설 화(Seol-Hwa Seo)

[정회원]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과(직업학 석사)
- 2014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직업, 진로, 취업, 대학생, 청년인턴